EMERiCs 이슈분석

경제 | 2017-342

리비아 | 아프리카·중동

유엔, 리비아 정국 안정화를 위한 '행동 계획' 발표

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

주요내용

- 2017년 9월 20일 유엔리비아지원단(UNSMIL: United Nations Support Mission in Libya)은 리비아 정국 안정화를 위한 행동 계획(Action Plan)을 발표함.
- 유엔 행동 계획은 ① 양측 정부 간 대화를 통한 리비아 정치합의안(LPA: Libya Political Agreement) 수정, ② 주요 기관의 인사 임명을 위한 국민회의(National Conference) 개최, ③ 대통령 선거 실시 이상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.
- 서부 및 동부 정부는 2016년 말부터 리비아 경제 재건에 어느 정도 공동 보조를 맞추는 양상을 보였으며, 이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자 통합 정부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됨.
- 동 계획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, 쟁점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척을 보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.

1. 이슈 현황

2017년 9월 20일 유엔리비아지원단(UNSMIL: United Nations Support Mission in Libya)은 리비아 정국 안정화를 위한 행동 계획(Action Plan)을 발표함.

□ 리비아는 2014년 8월 이후 서부 트리폴리(Tripoli) 정부와 동부 투부룩(Tubruq) 정부로 양분화되었으며, 현재까지 이 같은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.

□ 발표 직후 서부 및 동부 정부는 유엔 행동 계획에 동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고, 미국, 터키 등의 국가들은 잇따라 동 계획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.

2. 원인과 분석

유엔 행동 계획은 ① 양측 정부 간 대화를 통한 리비아 정치합의안(LPA: Libya Political Agreement) 수정, ② 주요 기관의 인사 임명을 위한 국민회의(National Conference) 개최, ③ 대통령 선거 실시 이상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.

□ 1단계에서는 과거 양분된 정부를 통합하는 데 실패하였던 LPA에 대한 수정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- 2015년 12월 UN은 서부 및 동부 정부의 단일 정부 구성안인 LPA를 제안하였지만, 세부사항 합의를 놓고 양측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이에 대한 실행이 무산됨.

□ 2단계에서는 국민회의(National Conference)를 개최하여 주요 기관의 인사 임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.

□ 1, 2단계가 완료되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통합 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것이 동 계획의 최종 목표이며,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8년 내에 해당 대선이 치러질 예정임.

서부 및 동부 정부는 2016년 말부터 리비아 경제 재건에 어느 정도 공동 보조를 맞추는 양상을 보였으며, 이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자 통합 정부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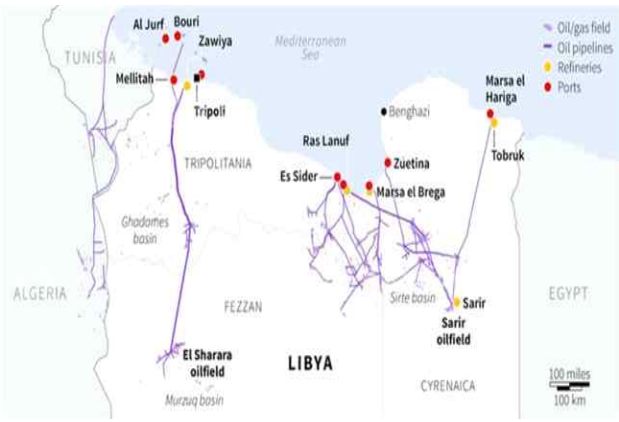
□ 첨예한 대립을 지속해 왔던 양측 정부는 2016년 말부터 △ 주요 석유 시설 재개 △ OPEC 감산합의 면제 등 경제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동조하는 양상을 보였으며, 석유 생산량이 급증하는 등 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.

- 리비아는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일일 평균 31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나, 2016년 10월 주요 석유 수출항의 운영이 재개된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7월에는 일산 100만 배럴을 기록하였음.
- 리비아는 총 수출의 95%, 정부 재정수입의 80% 이상을 석유자원에 의존하고 있음.

□ IMF(International Monetary Fund)는 2017년 리비아가 55.0%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.

□ 더불어 2016년 12월 리비아 통합군이 IS(Islamic Sate)의 국내 마지막 점령지였던 시르테(Sirte)를 탈환하는 등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자 통합 정부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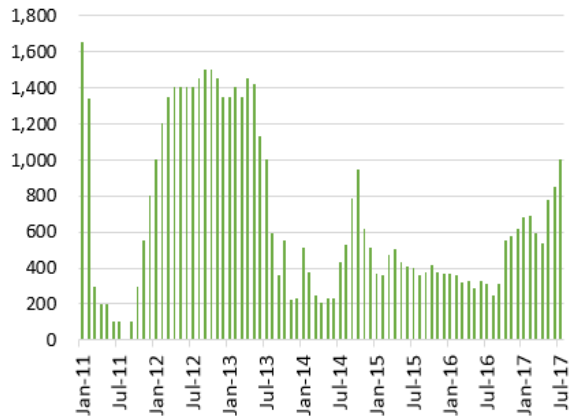
그림 1. 리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



자료: 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.

그림 2.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 추이

(단위: 천 b/d)



자료: 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.

3. 전망과 시사점

동 계획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, 쟁점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척을 보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.

□ 동 계획은 LPA와는 달리 양측 정부의 의견 수용을 통합 정부 수립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.

□ 그러나 정부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△ 대통령 위원회의 구성 △ 군사 및 안보 지도자 임명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양측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가 싱겁게 종결되며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.

□ 다만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서부 및 동부 정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는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, 재건 사업 수주 등 현지 진출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- 2014년 리비아에서는 국내 16개사가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중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나,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모두 철수했음. EMERiCs

참고문헌
- Bloomberg 등 국외 각종 언론자료 종합

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